

지구적 교회,  
지역 환경을 생각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첫번째 이야기 환경편

2009년 5월 8일(금) 오후 3시~5시  
레이첼카슨홀

주최\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CHURCH TRUST NETWORK

후원\_ 환경재단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

발행일 \_ 2009년 5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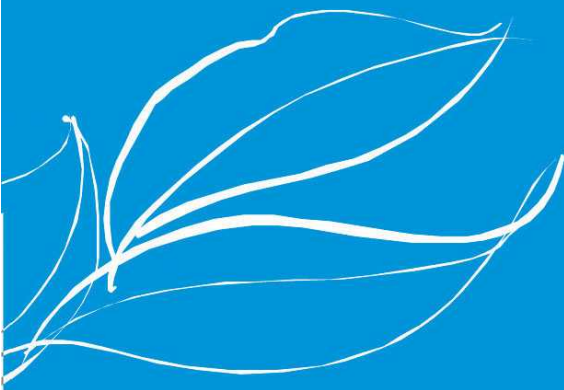
발행인 \_ 우창록

편집인 \_ 양세진

편 집 \_ 조제호, 전선영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trusti21@hanmail.net


[www.trusti.kr](http://www.trusti.kr) / [www.trustchurch.net](http://www.trustchurch.net)




지구적 교회,  
지역 환경을 생각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첫 번째 이야기 환경편

2009년 5월 8일(금) 오후 3시~5시  
레이첼카슨홀



주최\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사회회복네트워크  
CHURCH TRUST NETWORK

후원\_ 환경재단



# 진행 순서



사 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축 사** : **이 동 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 **인사말** : **임 성 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기윤실 공동대표)

##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8  
- **송 준 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 **생태문제, 교회의 책임** 22  
- **박 영 신**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 실천나눔 <i>Act Locally</i>	
●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24
- 손 석 일 전도사(높은뜻정의교회, 환경공학 박사)	
● 친환경 소비, 먹을 거리와 생활재를 중심으로	46
- 김 재 일 이사장(예장생협, 연평교회 목사)	
● 기후변화 대응 교회실천 및 녹색교회 운동	52
- 유 미 호 정책실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실천적 지혜 모으기	

# 인사말



##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시작하며

2008년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90점 만점에 40.95로 C-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에 대해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감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섬김의 방식과 자세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뢰조사가 단순히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민의 출발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회조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국사회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교회의 고민을 담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한 구성체로서의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이웃사랑의 방식이 교회중심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이웃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의 관점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기윤실에서는 주제별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 영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럼을 4차례 진행합니다. 매회 진행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지평을 넓히고 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교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 첫 포럼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적 이슈인 환경문제는 창조질서의 보전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지구적 개념으로서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 실천적인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교회와 환경,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키워드가 이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2009년 5월 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우창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본부장** 조성돈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문화>편**

일시 : 2009년 6월 12일(금)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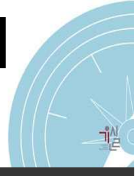
장소 : 문화공간(미정)

기조발제자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 9월- 사회적 기업, 10월- 통일(평화)을 주제로 포럼이 이어집니다.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 I. 생태신학의 위치

현대인은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유일한 삶의 공간인 지구의 환경이 훼손되어 인간 생존의 필수 요건인 공기, 물, 땅이 오염되고 있고 유한한 자원이 개발로 인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사막화되며 기후 붕괴로 인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인류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 문제에 대해 기독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응답의 시도가 생태신학 내지는 환경신학이다. 이것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신학사조로서 자연과의 사귄에 대한 신학적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창조론이 그 중심에 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창조 신학이 제시된다. 현대신학은 일반적으로 상황신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대의 정황(context)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본문(text)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생태신학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면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신학도 현대라는 정황이 만들어 낸 전형적인 상황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현대의 정황을 주제로 하여 전통신학의 창조 이해를 비판하고 창조 보전을 위한 새로운 신학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기 때문이다.



## II. 생태신학의 태동

생태학(ecology)이라는 말은 집과 학문을 의미하는 헬라어 οἶκος와 λογῆς를 합성한 말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공간인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생태학이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WCC 총회는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신학과 교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이 위기상황을 성경적인 창조신앙에 근거한 생태학적 신학으로 극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것은 생태학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표명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생태학적 성경해석이 시도되었다. 1983년에 Vancouver에서 열린 제6차 WCC총회는 자연보전의 문제가 신학적 토론과 실천과제임을 천명하고, 1990년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Justice, Peace, the Integrity of Creation을 신학적 주제로 새롭게 부각시키고,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는 주제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로 하고 부제를 창조보전으로 삼음으로써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Jürgen Moltmann이 쓴 <Gott in der Schöpfung>이 1986년에 김균진 교수에 의해 번역 출판되면서부터 생태신학이 소개되기 시작했다.<sup>1)</sup> 사실 생태학적 입장에서 창조론을 최초로 전개한 학자는 몰트만이었다. 그는 위의 책에서 현대의 생태론적 세계관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응답으로서 생태학적 창조신학을 제시하였다. 그 책의 부제가 “생태학적 창조론”이라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III. 생태신학의 과제와 동향

일반적으로 생태신학자들은 ‘환경’이라는 말 대신에 ‘생태’라는 말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환경’이라는 말은 그 중심에 인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이라는 말 대신에 생태라는 말을 즐겨 쓴다. 생태 문제는 사실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문제는 또한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정부, 기업,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생태계 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문제는 우리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다. 과도한 낭비와 무절제한 삶의 방식도 생태계 파괴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철학적인 면에서의 인식론의 변화로 인간중심주의와 이원론의 극복이 하나의 과제일 것이고, 생태 정의 운동을 통한 사회적 제도나 체제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또 하나의

1)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86년)

과제일 것이며,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방식으로의 변화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sup>2)</sup>

이런 다차원적인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차원적인 신학적 응답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 모든 차원에 대해서 응답을 시도하기보다 철학적, 신학적 차원에서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중심주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생태신학의 동향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생태신학의 주류는 인간중심주의를 배격한다. ‘하나님-인간-자연’의 위계 질서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고, 그 결과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하에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온건한 생태주의자들은 ‘하나님-인간/자연’으로 자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자연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똑 같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리고 공동 세계 속에 살아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생태신학자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자연-인간’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가이아 가설<sup>3)</sup>로 출발하여 오늘날 가이아이론으로 발전한 소위 범신론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이 인간과 대등한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으면 오늘날 생태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구의 많은 생태신학자들 중에는 동양의 범신론에 생태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처럼 생태신학의 중심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계관과 생태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태 문제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IV. 생태문제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

### 1. 들어가는 말

인간의 인간중심적인 관점이 바로 인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생태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John B. Cobb, Jr.에 의하면, 40년 전 기독교의 신학은 주로

---

2) 『A Theological-eth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Justice and Economic Growth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Modern Korea』 (송준인, the Univ.ofStellenbosch, D.Th.Dissertation, 1999, p.4.)

3) 가이아란 희랍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이다. 이것은 1970년대 영국의 과학자인 James Lovelock에 의해서 시작된 개념으로, 우주를 스스로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며, 의인화된 존재로 우주 안에 내재하는 신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Rosemary R. Reuther와 같은 여성신학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고 P. Teilhard de Chardin과 같은 과정철학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개념이다.

인간중심주의적이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 자연을 비로소 신학의 주제로 삼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sup>4)</sup> 그리고 그는 서구의 인간중심주의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태중심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을 생태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인간중심주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생태중심주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를 대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에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그 성경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중심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세 가지 견해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생태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 1) 인간중심주의의 정의

Richard A. Young은 인간중심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실재를 보는 방식이다. 우주 만물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관심에 의해 판단된다. 그것은 인간을 가치와 의미와 윤리와 권리와 사회의 향방을 주관하는 최종적인 권위로 인식한다. 세속적인 형태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신격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조작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을 만한 더 높은 권위가 없다.”<sup>5)</sup> 물론 모든 형태의 인간중심주의가 다 똑 같은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주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그것과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자로 우주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 두 가지는 모두 인간의 이기적인 오만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죄 받아야 한다. 더구나 기독교적인 인간중심주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신학적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신학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2) 인간중심주의적인 상황과 기독교

인간중심주의는 그것을 의문시하는 것조차 불경스런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이미 인간 생활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경제, 산업화, 진보와 풍요는 현대 사회의 당연하고도 올바른 특징들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사회에 너무나 뿌리깊이 박혀 있어서 인간이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얼마나 자기파괴적인 것인가를

4) *Sustainability*(1995,p.82)

5) *HealingtheEarth*(1994,p.116)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수천 년 간에 걸친 서구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중심주의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창세기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라든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든가, 인간의 구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성경은 외견상 인간중심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Lynn White, Jr.는 이렇게 주장한다.

“특별히 서구의 기독교는 가장 인간중심적이다. 고대의 이교주의나 아시아의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지지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남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sup>6)</sup>

Lynn White, Jr.는 성경의 창조 기사가 명백히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태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역사학자들은 현대 과학과 기술이 기독교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대 과학은 적어도 고전적인 희랍 문화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독교와 과학은 종종 상반되는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sup>7)</sup> 한편 성경학자들은 창조 기사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성경적인 자연관에 대한 화이트의 견해는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창조 기사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한 것을 오해하였으며 그 본문을 그 자체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읽지 못했다고 비판한다.<sup>8)</sup>

W.C.C.의 ‘교회와 사회’ 부서의 책임자였던 Wesley Granberg-Michaelson은 역사적으로 교회에 서구 문화가 예속되어 있었던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서구 문화에 교회가 속박되어 있었던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현대의 다원적인 문화를 기독교적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주도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자율성과 본질적인 선을 믿는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또 한 가지 서구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는 세계를 인간과 자연이라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요소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Granberg-Michaelson은 Renè Dubos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기독교와 생태 위기에 관해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화이트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가 몇 가지 잘못 해석된 성경 구절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 듀보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인간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파괴

6)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Francis Schaeffer’s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1977, p.107.

7) *Creator & Creation*, R. A. Simkins, 1994, p.6.

8) *ibid.*, pp. 4-7.

적이라면 그것은 과거보다 지금이 인구가 더 많아졌고 또 과거보다 지금이 더 강력한 파괴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태계 파괴는 바로 그것 때문이지 성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sup>9)</sup>

### 3) 인간중심주의와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 내에도, 예컨대 Thomas Derr와 같이 성경이 인간중심주의를 가르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명확히 인간중심적이다. 물론 인간의 지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은 배제하고서 말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중심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생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단지 ‘휴머니스트’로 불리기를 더 선호했다.<sup>10)</sup> Derr의 환경적인 주된 관심은 가난한 자와 억압 받는 자에게 있었으며, 그의 견해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한 복음이나 요한의 서신들, 그리고 히브리서와 같은 신약성경에서는 자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일차적인 초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구원, 화해, 죄, 용서, 믿음, 은혜, 자비, 회개 등과 같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단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중심주의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 John B. Cobb, Jr.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교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인간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가르친다”<sup>11)</sup>

이 점에 관한 Richard A. Young의 견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경에는 자연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 서구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주제와 그 주제가 제시하는 세계관 사이의 혼동일 것이다. 예컨대,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자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상세히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중심주의만의 세계관’(a theanthropocentric worldview)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결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밑바탕에 유신론적인 관

9) *Ecology and Life*, Wesley Granberg-Michaelson, 1988, p.33.

10) *Environmental Ethics and Christian Humanism*, 1996, p.18.

11) *Sustainability*, 1995, p.92.

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sup>12)</sup>

그러므로 인간중심주의는 원천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 사상이라든가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같은 세속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인간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한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관건은 타락한 인간이 그러한 인간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태도가 이기주의적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한 인간중심주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생태중심주의(Biocentrism)**

#### **1) 생태중심주의의 정의**

비교적 최근에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겨난 관심 중의 하나는 창조 중심의 영성이다. 그러한 관심의 중심에는 신학적 관심이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생태중심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놓여 있다. 생태중심주의는 전체 생태계가 도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이다.<sup>13)</sup> Richard A. Young은 생태중심주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생태중심주의는 전체 생태계가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윤리의 궁극적인 준거점이라고 가르친다. 지구의 생태계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지탱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 생태중심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다. 대신에 지구상의 모든 것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한다.”<sup>14)</sup>

Paul W. Taylor의 *Respect for Nature*(1986)는 생태중심주의적인 윤리를 철학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태중심주의자로서 테일러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계를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테일러는 이 관계를 모든 생명의 내재적인 가치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았다. 테일러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의 선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테일러는 그것을 자연에 대한 생태중심적인 조망이라고 불렀다. 그는 만일 생태중심적인 조망이 채택된다면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야말로 자연을 바라보는 유일한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생태중심적인 조망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중요한 신념이 에워싸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5)</sup>

---

12) *op. cit.*, p. 120.

13) “Environmental Ethics”, in *Religious Studies Review*, vol.23, 1997, p.246.

14) *op. cit.*, p. 124.

15) *Respect for Nature*, 1986, pp.99-100.

첫째, 인간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듯이 다른 피조물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다.

둘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상호의존적인 체계 속에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호의존적이라 함은 각각의 생명체의 생존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물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유기체는 그 자체의 방식으로 그 자체의 선을 추구하는 독특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인 생명의 중심이다.

넷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요컨대,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복지가 근본적으로 전체의 복지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2) 생태중심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sup>16)</sup>

대부분의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두는 인간중심주의를 열정적으로 반대한다. 심지어 인간을 우월하게 본다고 해서 성경까지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포기하는 대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생태중심주의는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었고,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만일 가치 구조가 부인된다면 서로 다른 관심이 충돌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만일 모든 차이와 이원성을 부인하는 일원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치 구조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인간은 바위나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우주적인 힘에서 생겨났고, 결과적으로 둘 다 동일한 힘 속으로 합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평준화가 바로 생태중심주의의 특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곧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중심주의로 가지 않고 그저 인간중심주의만을 파기하게 되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갈등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는 그 본질상 자연의 질서를 초월할 수 없고 그 결과 윤리를 다루는 형이상학적 차원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면 인간의 비인격화가 초래되고 인간이 가진 특별한 특성이 무시되게 된다. 인간이 가진 특성들은 생태계의 일반적인 기

---

16)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Richard A. Young의 *Healing the Earth*(1994)와 Thomas S. Derr의 *Environmental Ethics and Christian Humanism*(1996), 그리고 Michael Cromartie가 편집한 *Creation at Risk?*(1995)를 참고하라.

능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 생태중심주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를 돌보는 일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자연이 궁극적인 법의 수여자가 되고 그 자체를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윤리가 규범이 된다.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 없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파괴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각이 있다. 인간에게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인간됨(humanness)을 파괴하는 것이다. 생태중심주의적인 견해가 받아들여지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셋째, 생태중심주의에는 실존적인 의무 내지는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의 존재나 계속성을 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자연에게는 다른 생명체나 우리 자신들을 보존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 자연은 말 없이 침묵하고 있다. 문제는 존재에서 당위성으로(istought)의 논리적 비약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생태중심주의의 문제는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생태중심주의에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공평하고 믿을 만한 행위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심각한 생태중심주의의 문제는 숙명론이다.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what is)으로부터 존재해야만 하는 것(what ought to be)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따라서 그들의 바람직한 미래는 자연 세계가 그 자체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전제될 때에만 그 근거를 얻게 된다.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어떤 유기체가 존재하면 그것 나름대로의 생태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유기체를 건드리지 말고 홀로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자연의 것들은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선한 것들이다. 그래서 Derr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어떤 유기체가 생태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쨌든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유감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은 개체들에게는 나쁜 것이지만, 생태계 전체에게는 유익한 것이다.”<sup>17)</sup>

#### **4. 하나님중심주의(Theocentrism)**

##### **1) 하나님중심주의의 정의**

하나님중심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며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Richard A. Young은 이렇게 말한

---

17) “The Challenge of Biocentrism” in *Creation at Risk?* edited by M. Cromartie, 1995. p.10.



다. “하나님중심주의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일된 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윤리의 원천이며 지탱자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는 무한한 근거점이 없이는 가치의 근거가 무너지고 생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sup>18)</sup>

## 2) 진정한 성경적 대안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진술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다. I.J.Hesselink는 칼빈주의의 특징이 하나님중심주의 신학이라고 하였다.<sup>19)</sup>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중심주의자가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 아마도 기독교와 인간중심주의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생태중심주의자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는 정말로 기독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내지는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성(modernity)의 기본적인 가정들 중의 하나이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것에 반대해 왔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리들에 충실하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중심주의에도 불가피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나머지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함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현대의 인간주의나 인간중심주의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생태중심주의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Vincent Rossi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생태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중심주의가 되어야 한다...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에게 지구를 지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독교의 통찰력을 보존하는 견해이다”라고 말했다.<sup>21)</sup>

Paul Santmire 역시 하나님중심주의가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성경적 대안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편으로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놓는 것(인간중심주의의 경향)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정의를 갈구하는 인간성을 합치려는 위험성(생태중심주의의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근거를 갖고, 통일되며,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제안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중심주의적인 틀이다.”<sup>22)</sup>

18) *op. cit.*, p.128.

19) *On Being Reformed*, 1983, p.94.

20) Vincent Rocci(“Theocentrism: Cornerstone of Christian Ecology”, in Granberg-Michaelson’s *Ecology and Life*, 1988, p.152)에 의하면, 현대성에서 합리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인간주의, 과학기술주의 등이 나왔으며 그 모든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단적인 것이라고 했다.

21) *ibid.*, p.158.

### 3) 하나님중심주의의 생태학적 의미

하나님중심주의의 생태학적 의미는 인간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의 그것을 뛰어 넘는다. Richard A. Young은 하나님중심주의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놓았다.<sup>22)</sup> 첫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단순한 존재로부터 당위성을 이끌어 내려는 무모한 시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중심주의의 모든 가치와 윤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의 독특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중심주의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다. 인간은 창조라는 가족 내에서 겸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참된 청지기직은 하나님중심주의 안에서만 이론적 근거를 갖는다. 만일 인간이 지구의 청지기라는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장된다면, 그것은 이내 인간 자신의 이익 추구라는 위험성에 빠지게 될 것이다.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넷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하셨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반대로 탐욕과 착취와 힘의 남용과 자연의 오용이 온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 공동체가 작동하도록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

다섯째, 하나님중심주의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를 제공한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단점들에 빠지지 않고 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할 만큼 포괄적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필요에 모두 민감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갖고 계신 관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끝으로, 하나님중심주의는 한 분이신 창조주가 우주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을 갖게 해 준다. 만물은 인간이 하나님에

---

22) *Brother Earth*, 1970, p.104.

23) *op. cit.*, pp.129-131.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에 의해서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중심주의야말로 생태학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과 제언

결론적으로, 하나님중심주의는 현대의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도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 하나님은 자연을 인간의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또한 인간을 자연의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으셨다. 인간에게는 가치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연도 인간의 숭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권리와 윤리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은 우주적인 질서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제자리를 찾아야만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전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중심주의는 피조물에게 존재의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희망을 주는 지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생태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계의 문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다. 하나님, 인간, 자연에 대한 관점, 그리고 개인, 기업, 정부의 입장,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입장이 얽혀져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생태문제는 자연이나 환경 보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사실 빈곤의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당면한 사회생태학적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만 해도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인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를 오늘날의 생태신학의 동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정통 개혁주의 노선에 서서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인 대안은 인간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중심주의임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 지면상 자세히 논의되지 못한 영역은 하나님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의 문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훌륭한 생태신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어 이런 많은 과제들에 대하여 대화하는 장이 주어지야 할 것이다.

생태계 위기의 원인은 데카르트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 즉 실재를 정신과 물질, 둘로 보

는 이원론이 철학적 배경을 제공했다.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삶의 방식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가치관과 욕구가 소유와 소비와 향락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기독교의 신관과 창조론,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록 앞에서 기독교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은 성경 본래의 세계관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 맞도록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밝혔지만,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그 비판을 받아들여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관과 창조론과 인간관과 자연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생태 파괴가 있다. 루터가 말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인 지식, 의, 거룩함의 파괴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무지를 낳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실함으로 바른 상호관계가 파괴되었으며, 돌보며 섬겨야 하는 청지기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방종하고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생태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리고 파괴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되찾아 자연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언자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태학적 신학의 가장 큰 공헌은 그 동안 등한시 되었던 창조론을 신학의 주제로 새롭게 부가시켜 창조론의 부흥을 가져 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경적 창조 신앙의 본래 의미를 탐구하여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생태학적 신학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반면, 복음주의 내지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성경 본래의 의미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자와 정복자가 아니라 돌봄과 보살핌의 의무를 지닌 청지기이다. 이러한 성경적 창조 신앙과 자연관을 확산시키는 것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신학이 공헌할 수 있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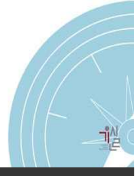


Memo



생각나눔 Think Globally ②

## 생태문제, 교회의 책임



박영신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Memo



#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손 석 일 전도사(높은뜻정의교회, 환경공학 박사)

세계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각종 환경운동과 캠페인이 일어났고 추진되고 있다. 기독교계 내에서도 많은 환경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의 첫 주제로 '환경'이 다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이미 많은 운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도 '생명살리기운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캠페인, 환경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환경운동, 가톨릭교계나 불교계와 같은 종교계에서도 많은 환경운동을 하고 있기에 반복하기 보다는 이번 포럼은 교회가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일반적인 환경운동의 내용들보다는 교회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일부는 중복되는 것도 있겠고 일부는 가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희망적인 제안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위한 환경목회, 친환경적인 교회건축과 운영, 구체적인 교회 내에서의 실천운동, 환경을 이용한 선교, 환경교육, 환경을 통한 섬김과 교제, 예배와 설교 등 가능한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친환경 교회건축

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교회가, 아니 교회건물이 너무 대형화되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건물이 크다 보면 지역사회와의 융화가 쉽지 않고 에너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주일의 교통체증과



교인차량으로 인한 매연은 지역주민들과 교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건축비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규모의 교회당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 100억 원대 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건축한 규모의 교회를 유지하는데 냉난방 등과 더불어 제반 유지비만 년 간 억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천주교는 2~3천 명 정도의 성도가 되면 새롭게 건축을 한다. 개신교도 한 교회의 건물을 크게 재건축하기 보다는 주일 최대 2~3천 명을 수용하는 정도의 교회건물들을 계속 건축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와 조화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적일 것이다.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면 분립개척하여 다른 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과 호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회의 담을 헐고 정원을 가꾸어 친환경적인 교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휴식하고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도 ‘교회를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담장을 허물고 생울타리와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작은 정원이나 모퉁이 숲을 조성하거나 옥상에 하늘동산을 조성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다른 한 방법으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의 강당을 빌려서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주변에 교육관을 얻어서 주중 예배나 교육을 하는 것도 친환경적인 교회 건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일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강당과 교실과 운동장을 대예배실과 주일학교 예배실과 공과공부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교회건축이라 할 수 있겠다.

높은뜻정의교회는 정의여자고등학교의 강당을 빌려 대예배를 드리고 강당지하의 낡은 동아리실들과 일부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주일에는 교회가 사용한다. 운동장은 좋은 주차장이 되기도 하고 주일오후 교인들의 휴식공간과 주일학교 특별행사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음향장비나 가구, 케노피 등도 학교와 교회가 공유한다.

## 2. 친환경 교회 인테리어

교회 건축 시에도 당연히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테리어 또한 친환경적이어야 할 것이다. 재료도 재활용재료를 사용하고 가구도 재활용센터에서 중고로 구

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비의 절감과 더불어 재활용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내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연채광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절약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무실과 복도에 공기정화식물을 두어 가꾸므로 교인과 교직원들의 마음도 편안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친화적인 실내디자인은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각종 실내오염물질들로부터 보호하고 안정감도 주어 업무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

### 3. 친환경 교회 운영의 시작

먼저 제일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친환경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아무리 교단에서 좋은 친환경 운동을 하고, 환경단체에서 좋은 환경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해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의지가 없으면 그 교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교회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부' 내지는 '환경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환경전담 부서나 위원회의 역할이 지적하거나 질책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교인들이 친환경적인 교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제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국께서 '환경과 생명' 2006년 가을호의 '새로운 녹색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환경운동의 한계와 문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늘 반대하는 형식으로 비춰지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그 뜻은 귀하지만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 4. 친환경적 교인을 위한 홍보와 제안

그린피스 국제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슈는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 숲을 보호하는 것, 바다를 보호하는 것, 유전공학을 거부하는 것, 독성화학물질을 줄이는 것, 비핵화하는 것, 핵에너지를 끝내는 것, 친환경제품 무역을 권장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교회가 세계적인 친환경적 행동의 흐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친환경 운전실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속도 준수, 둘째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셋째 출발은 천천히, 넷째 공회전은 이제 그만, 다섯째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여섯째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 일곱째 ‘정보운전’의 생활화, 여덟째 트렁크를 비우자, 아홉째 ‘친환경자동차’를 선택, 열 번째 ‘유사연료, 인증 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가 그것인데 교회가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나의 환경실천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생활’, ‘쓰레기’, ‘에너지’, ‘교통지수’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환경실천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교회는 얼마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또한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10계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실내 온도(18~22℃) 및 습도(40~50%)조절, 둘째 알맞은 환기(하루 3번 30분씩), 셋째 베개 및 침구류 관리, 넷째 숲(전자파 차단, 오염물질 흡착제거) 이용, 다섯째 식물(공기정화, 습도조절, 심신의 안정) 이용, 여섯째 공기청정기 이용, 일곱째 의류관리, 여덟째 금연, 합성세제 자제, 애완동물 주의, 아홉째 새집 이사 전 베이킹 아웃(실내온도 30℃로 5~6시간 유지하고 외출 후 돌아와 1시간 환기, 주 2회 이상 1달간), 열 번째 친환경 인테리어(친환경 자재)가 바로 그것인데 교회의 실내공기질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CO2를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를 제안하고 심각한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과 지구를 지켜 나가기 위해 작은 행동하나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 -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1.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1도의 비밀)
2.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B.M.W 건강법)
3. 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착한 선택)
4. 물을 아껴 씁니다. (Speedy 샤워)
5.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I LOVE 머그컵)
6.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Eco-드라이빙)
7.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플러그 OFF)
8.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초록사랑)

환경부에서는 여름철에 노타이 복장을 했을 경우 체온의 2도 저감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여름에 정장대신 노타이 등의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통해 사무실, 사업장, 차량의 냉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건강도 증진하는 기후적응형 복장 캠페인도 하고 있다.

## 5.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환경캠페인 참여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하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녹색교회 십계명’, ‘녹색기독인 십계명’, ‘기독인 물사랑 수칙’, ‘기독인 에너지절약수칙’, ‘생명밥상 수칙’, ‘녹색교회 다짐’, ‘녹색 수련회 지침’, ‘생활 속 CO2 다이어트 서약’ 등을 제안하고 있다.

<p><b>녹색교회 십계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주일(6월 첫 주일)을 정하여 지킵니다.</li> <li>2.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 기도합니다.</li> <li>3.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설교합니다.</li> <li>4. 창조보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li> <li>5. 환경전담 부서를 둡니다.</li> <li>6. 환경을 살리는 데 예산을 사용합니다.</li> <li>7.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소비를 절제합니다.</li> <li>8. 냉난방을 절제합니다.</li> <li>9. 중고품, 재활용품, 환경상품을 애용합니다.</li> <li>10. 지역사회, 교회들 간에 환경보전을 위해 연대합니다.</li> </ol>	<p><b>녹색기독인 십계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li> <li>2. 이용합니다. 대중교통</li> <li>3. 삼갑니다. 합성세제</li> <li>4. 사용합니다. 중고용품</li> <li>5.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니다.</li> <li>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니다.</li> <li>7. 칠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니다.</li> <li>8. 팔지 않습니다. 소비광기에 한 눈을</li> <li>9. 구합니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li> <li>10.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습니다.</li> </ol>
<p><b>기독인 물 사랑수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은 반이쓰고, 화단 주방, 변기용으로 다시 사용하자.</li> <li>2. 가끔씩 손빨래하고, 세탁시 빨래를 모아서 하자.</li> <li>3. 세탁, 샤워, 머리감기 횟수를 줄이자.</li> <li>4. 합성세제 대신 천연세제(비누)를 쓰자.</li> <li>5. 먹을 만큼 차리고 음식찌꺼기를 줄이자.</li> <li>6. 변기세척제, 표백제 등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자.</li> <li>7. 쓰레기와 오물을 하천, 바다에 버리지 말자.</li> <li>8. 새강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li> <li>9. 지하수 이용을 절제하고 오염을 줄이자.</li> <li>10. 중수도 설치, 수도통 누수방지, 수도물값 인상을 건의하자.</li> </ol>	<p><b>기독인 에너지 절약수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소한 생활로 소비를 줄인다.</li> <li>2. 난방온도를 18~20도로 하고 내복을 입는다.</li> <li>3. 여름에는 냉방온도를 26~28도를 하고 에어컨 사용을 절제한다.</li> <li>4. 주거 및 집회, 업무공간을 최소화한다.</li> <li>5. 중고품과 재생용품을 이용한다.</li> <li>6.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기, 전기 제품을 이용한다.</li> <li>7.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간다.</li> </ol>

<p><b>생명밥상 수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li> <li>2. 채철음식을 먹는다.</li> <li>3. 가공식품을 삼간다.</li> <li>4. 외식을 최대한 줄인다.</li> <li>5. 계획 구매하여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li> <li>6.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을 만큼 담아낸다.</li> <li>7. 반찬수를 줄여 간소한 상을 차린다.</li> <li>8.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긴다.</li> <li>9. 생명주시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li> <li>10. 신음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소식한다.</li> <li>11.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li> <li>12. 최소한으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재활용한다.</li> </ol>	<p><b>녹색교회 다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물을 창조하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li> <li>2.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한 몸임을 고백한다.</li> <li>3. 창조보전에 대하여 교육한다.</li> <li>4. 어린이와 청소년을 친환경적으로 키운다.</li> <li>5. 환경을 살리는 교회조직을 운영한다.</li> <li>6. 교회가 절제하는 생활에 앞장선다.</li> <li>7. 생명밥상을 차린다.</li> <li>8. 교회를 푸르게 한다.</li> <li>9. 녹색살림터를 운영한다.</li> <li>10. 창조보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대한다.</li> </ol>
--	--

<p><b>녹색 수련회 지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발 전에 검소한 수련회가 되도록 녹색수련회 지침을 교육한다.</li> <li>2. 예배순서(설교, 찬송 등)에 자연을 생각하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시킨다.</li> <li>3. 기도 중에 파괴된 자연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킨다.</li> <li>4. 시상품은 재생공책, 재생비누 등 환경상품으로 준다.</li> <li>5. 흙, 나무, 곤충 등을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간단한 생태교육을 실시한다.</li> <li>6.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li> <li>7. 간식은 자연식으로 한다.</li> <li>8. 식사 전에 창조에 관한 성구를 암송한다.</li> <li>9. 식사 전에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li> <li>10. 음식은 간소하게 준비하고 인스턴트나 수입식품을 피한다.</li> <li>11. 일회용품은 쓰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번 사용한다.</li> <li>12.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식기세척, 머리감기 등)</li> <li>13.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을 두고 분리하여 버리도록 교육한다.</li> <li>14. 수련회 장소 주변의 동식물을 보호한다.</li> <li>15. 수련회를 마칠 때 주변을 잘 정리하고 쓰레기는 되가져온다.</li> </ol>	<p><b>생활 속 CO2 다이어트 서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지 않는 가전기기는 플러그를 꼭 빼놓겠습니다.</li> <li>- 냉난방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li> <li>- 에너지 효율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li> <li>-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li> <li>-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겠습니다.</li> <li>- 공회전을 없앨 뿐 아니라 승용차를 덜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li> <li>- 환경상품을 사용하고, 포장을 줄이겠습니다.</li> <li>- 나무를 많이 심고 돌보겠습니다.</li> <li>-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함께 하겠습니다.</li> </ul>
--	---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녹색교회 21' 실천 확산을 위해 1999년 5월에 실시한 '교회 환경실천 실태조사'의 설문조사내용

### **- 선포(Kerygma)**

1. 하나님의 피조물을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한다.
2. 예배당에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을 피한다(꽃꽂이 대신 화분).
3. 교회력을 창조보전의 의미를 살려 지킨다(예. 창조주일, 추수감사주일).
4. 환경주일(6월 첫 주일)을 정하여 지킨다.
5. 음향설비에 지나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전도 활동시 환경캠페인을 겸한다(환경전도지 활용).
7. 자연예배를 드린다.
8. 대예배 기도할 때 이웃과 자연을 위해 기도드린다.

### **- 교육(Didache)**

9.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성경공부를 한다.
10. 교회학교, 자치단체, 구역모임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11. 환경을 생각하는 수련회나 자연관찰 프로그램을 갖는다.
12. 농촌을 방문하여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한다.
13. 환경특강, 세미나, 창조신앙 사경회 등을 개최한다.
14. 일회용품과 합성세제 안 쓰기. 시장바구니 보급, 재생활장지 쓰기 등 가정에서의 실천을 교육한다.
15. 교회학교에서 간식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우리 농산물로 된 먹거리를 제공한다.
16. 교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중고품 시장을 열어 참고서, 학용품 등을 함께 교환하여 쓰도록 교육한다.

### **- 친교(Koinonia)**

17.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18. 주방에서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
19. 야유회를 이용하여 피조물과의 친교를 도모한다.
20. 자신이 사는 곳을 교회 근처로 옮긴다.
21. 주일은 영과 육이 안식하도록 노력한다.
22. 지역주민의 친교공간으로 교회를 개방한다.
23. 교회의 담장을 없애고, 온갖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 **- 봉사(Diakonia)**

24. 환경을 살리는데 예산을 사용한다.
25. 교회가 환경친화적인지 살핀다(환경감사).
26. 과도하게 주차장 이용을 절제하도록 한다.
27. 주일에 자가용 이용을 절제하도록 한다.
28. 교회 건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

- 29.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프로그램을 실시한다(한 교회, 한 프로그램 실천운동).
- 30. 지역사회, 교회들 간에 환경보전을 위해 연대한다.

### **- 조직(Organization)과 행정**

- 31. 환경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 32. 교회물품 소비를 검소하게 한다.
- 33.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34. 불필요한 인쇄를 하지 않는다.
- 35. 주보나 인쇄물을 재생지로 인쇄하도록 한다.
- 36. 이면지를 활용하고 분리수거에 힘쓴다.
- 37. 잡동사니 우편물을 거절한다.
- 38. 냉난방을 절제한다.
- 39. 교회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
- 40. 물품 구입 시 가능하면 재활용품이나 환경상품을 쓴다.

위와 같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좋은 환경 캠페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교회의 복도, 엘리베이터 안과 밖, 화장실 등에 예쁘게 부착하여 교회 내에서 오가며 교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교회 환경실천 설문조사'는 각 교회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여기에 '예배(Leitourgia)'항목을 추가하여 2번, 3번, 4번, 7번, 8번을 이 항목으로 이동하고 '선포(Kerygma)'항목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나라(북한, 아프리카)에 식량이나 생활용품을 보낸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사막화를 막을 수 있도록 중국이나 몽골에 나무심기를 지원한다', '쓰나미나 지진과 같은 환경재난을 겪고 있는 세계의 이웃을 돌본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를 식수로 개발해 준다', '친환경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현지 입양을 교인들이 하게 한다' 등의 선교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캠페인 외에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환경통신강좌', '생태기행', '생태적 삶을 위한 훈련과 전문 강좌'와 같은 환경교육과 '환경주일 지키기', '생명밥상운동', '녹색교회선정', '교회를 푸르게', '녹색살림터', '환경전도와 창조신앙사경회', '주말농장' 등의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환경적 운영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6. 다른 단체들에 의한 환경 운동

천주교에서는 천주교환경연대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천주교 환경사목위원회가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1990년에 '환경보전처'로 시작하여 2000년에 '환경사목위원회'로 승격하여 '창조영성 연구', '창조영성 기도, 피정, 미사', '환경 교육(특강, 강좌)', '환경 탐방, 캠프, 전시회, 음악회', '도보 생태 순례와 자연미사', '환경신학, 교리서, 지침서, 동화발간' 등의 일들을 하고 있으며, '도농교류프로그램'이 활발하여 '정월대보름행사(2월)', '토마토, 수박, 고추, 양배추 모종심기(4~5월)', '딸기 따기, 사과 꽃따기, 뽕잎 따기(5월)', '오리 넣기, 풍년기원미사, 손모내기(6월)', '가을걷이 벼 베기, 매뚜기 잡기, 고구마 캐기, 꾀감 만들기(10월)', '도농한마당 잔치(11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신앙인의 서약으로 '즐거운 불편'을 다짐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에서는 발우공양을 현대화한 '빈그릇운동'을 2000년 초부터 추진하여 2004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빈그릇운동 총서약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빈그릇운동'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깨끗하게!"를 모토로 한 생활인들의 웰빙, 청정, 나눔운동이다. 빈그릇 운동의 실천 방법을 '장보기', '음식만들기', '공양하기', '설거지'의 4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방세제 대신 '친환경 수세미(아크릴섬유)'사용과 남은 음식물의 '지렁이화분'에서의 완전분해로 '음식물쓰레기zero운동'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빈그릇운동으로 환경보호와 나눔까지 연결하고 각종 생태교육과 생태학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봉은사 등과 같은 주요 사찰들의 참여로 운동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생명밥상 빈그릇 서약운동'과 유사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작년부터 10만인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불교계에서는 2006년에 이미 150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름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세균번식이 없고 세제가 필요 없는 '친환경 아크릴사 수세미'의 보급과 음식물을 분해하는 '지렁이화분'의 보급은 교회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 밖에도 녹색연합에서는 재활용지 국정교과서운동을, 환경재단에서는 그린페스티벌, 환경포럼, 생명의 우물, 그린아시아, 버드맵, 기후변화센터 교육, 어린이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재단 대표 최열께서 집필하신 '지구온난화 이야기'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행동 달력'을 소개하고 있어서 31일간 매일 실천하고 체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는 지구온난화 베스트 영화리스트와 베스트 책리스트, 그리고 베스트 체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 7. 친환경 교회 운영에 대한 제안

앞서 언급한 환경부나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서약이나 환경 10계명들을 교회에 비치하여 교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와 교인의 친환경적 의식변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각종 환경활동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교회의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교회활동과 제안을 주관하도록 한다. 부서와 예산배정 없이는 친환경적인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

주보나 인쇄물을 재생지로 제작하고 복사용지까지도 가능한 재생지로 사용한다. 사실 가장 손쉬운 것이 재생지 사용이다. 재생지는 교회가 결정만 하면 어느 교회나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이다. 그리고 주보를 비롯한 각종 인쇄물에 “이 주보(인쇄물)는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면 좋은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유인물이나 인쇄물에 불필요한 코팅을 하지 않음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해마다 재활용지로 교회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어리는 앞에 월간 계획표를 만들고 뒷면에는 메모할 공간을 많이 줌으로써 설교메모와 장보기 메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고 늘 들고 다니므로 인해서 친환경 전도용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일학교의 각종 선물이나 달란트 잔치에서도 재생노트와 재생종이 볼펜이나 재생종이 연필 같은 친환경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

현금봉투는 교회의 대표적인 종이쓰레기일 것이다. 현금봉투를 재사용이 가능하게 월별이나 주별로 기입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매 주나 매 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금봉투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이름이 있는 현금봉투는 교회의 한 쪽 코너에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현금봉투함을 두어 개인이 직접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손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한다. 교회의 로고를 새긴 분리수거백을 제작하여 교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하는 것도 좋은 운동과 더불어 교회가 분리수거에 앞장선다는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메시지가 담긴 장바구니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교회의 각종 도농교류 거래나 재활용품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교역자나 직원들은 교회에 자기 컵을 비치해 두었다가 사용하기가 쉽지만 성도들은 개인 컵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즐거운 불편'을 기쁘게 감당하는 분위기로 '개인 컵 소지'를 권장하도록 한다. 의외로 교인들 중에는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교회로고를 새긴 다양한 종류의 컵(스텐레스컵, 머그컵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수익금은 물론 환경선교를 위해 사용하면 될 것이다. 교회행사의 기념품으로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담긴 스텐레스컵(젊은 층)이나 머그컵(중년층)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면 그 컵이 바로 들고 다니는 전도용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녹차잎을 거를 수 여과망이 있는 컵으로 제작하게 되면 녹차티백의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회 화장실의 손 닦는 휴지나 젖은 손을 말리는 전기드라이보다는 수건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며 친근해 보인다. 또한 교인들에게 손수건휴대를 권하여 가능한 자신의 손수건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본 교회에서도 화장실에 수건을 비치하여 두고 사용하고 있으며 세탁의 문제는 주변 세탁소에서 저렴한 가격의 세탁비로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있다. 교회의 각종 행사 선물로 교회의 로고와 친환경 메시지를 새긴 손수건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손수건 들고 다니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커피도 가능한 봉지믹스커피 보다는 커피를 직접 타서 마실 수 있게 하고 자판기도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원두커피나 녹차를 대형 물통에 준비하여 개인이 적당량 따라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름에는 교인과 직원과 더불어 교역자까지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교역지는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타이 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여름에는 에어컨만으로 냉방을 하지 않고 선풍기와 병행하고 부채사용을 권장한다. 교회의 전도용 부채를 예쁘게 제작하여 교인들이 구입하고 선물로도 줄 수 있게 한다면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다. 물론 부채에는 좋은 친환경적인 그림이나 글을 잘 도안해 넣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걸어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 구역(순)별로 교인들의 카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녹색가게'를 상설하여 교회 내에 설치하거나 주일만이라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교회나 농촌 유기농 농가의 제품을 연계하여 매 주일마다 공동구매할 수 있다. 한 주전에 주문하고 다음 주일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하면 편리하다. 저희 젊은부부 부서에서는 2006년에 유기농가에 방문하여 수련회를 한 뒤로 유기농 유통란을 매 격주마다 공동구매하고 있다.

젊은부부 부서에서는 임신부복과 각종 유아용품과 동화책, 옷 등을 서로 물려 입는다. 어른 옷들도 작아진 옷을 물려 입는다. 유모차, 카시트, 아기 장난감, 아기 옷, 그네, 보행기 등 유아용품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물려 쓰기에 충분히 깨끗하고 멀쩡하다. 자연스럽게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운동이 교회 내의 부서와 구역(순)에서는 가능하다.

생협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녹색가게'와 같은 상설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깨끗한 매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가게가 될 것이다. 단 매장을 꾸밀 때 깨끗하고 멋있는 매장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는 매장 인테리어와 더불어 재활용품이지만 헌 것 같지 않고 특별한 리폼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회에 카페를 만드는 교회가 늘고 있다. 기왕이면 카페에 유기농 차를 마실 수 있고 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카페를 제공하면 더 좋을 것이고, 카페와 더불어 한 쪽에 책이나 천연비누나 유기농 제품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녹색카페'가 될 것이다.

교회에서 '개인 컵'을 들고 다니거나,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활동에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을 선별하여 매 달 '녹색선교사'로 임명하고 녹색청지기의 역할과 녹색위원회의 회원의 자격을 주어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삶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한다.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이미지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환경에 관심을 가진 교회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교인들도 각 가정에서 친환경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만 기재된 교패에서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담긴 교패로 교체할 수 있겠다.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크게 기록하고 아래에 조그맣게 교회의 이름을 기재해도 충분하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액자형 교패를 사용하여 절기나 계절마다 속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겠다. 물론 너무 크지 않고 보기에 좋고 따뜻함이 전해지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회의 친환경적 변신은 의외로 쉽다. 먼저 친환경적인 의식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 가식만이라도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결국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교인 한두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시작하게 될 것이다.

## 8. 친환경 녹색선교

일단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 담을 헐고 교회의 마당을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절마다 예쁜 꽃도 심어놓고 산책과 쉼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꽃나무를 파가는 경우나 교회시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일 것이다.

지난 해 높은뜻승의교회에서는 주변지역에 껌떼기 선교를 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봉사자 조끼를 입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껌을 떼는 장면은 주변의 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 선교에 충분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어린이적십자의 주최로 걷기대회를 참가했을 때 1미터에 1원씩 5킬로미터를 걷고 5천원 후원금을 내는 것을 보았다. 교인들이 지역의 경치 좋은 곳을 걸으며 쓰레기도

좁고 걸으며 자연도 만나고 걸은 거리만큼 선교헌금도 하고 도착지의 자연 속에서 예배와 성찬도 한다면 좋은 친환경적 선교가 될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아무리 학용품을 아껴 쓰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적당하게 사용한 몽당 연필과 몽당 크레파스, 그리고 교인들의 오래 된 안경, 옷들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교회에 상설 배치하여 교인들이 항상 가져와서 모을 수 있게 하고 모인 것들을 선교지에 보낸다면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더불어 선교에도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월드비전에서는 해마다 ‘세계 물의 날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으로 빈곤지역의 식수펌프개발과 관리 및 지역주민의 식수위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재단에서는 ‘생명의 우물’후원을 통해 캄보디아와 몽골에 우물을 만들어 주고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다일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다. 이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오염된 물을 같이 마시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식수를 개발해 주고 같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선교인 때이다.

몽골선교사로 가면서 황사걱정을 하는 선교사를 본 적이 있다. 몽골처럼 사막화가 일어나는 선교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적 활동을 통한 녹색선교일 뿐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다. 올해 4월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사막화방지를 위한 NGO 푸른 아시아’는 몽골 현지에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무 심기를 통한 조림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만원의 행복, 사막의 푸른 꿈을’이란 기치로 후원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녹색선교’인 것이다.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유기농 농사법을 배워서 선교지에서 적용한다면 선교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해주에서는 유기농 콩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거기는 땅도 넓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쓸 돈도 없어서 자연농법으로 콩을 재배하기에 알맞아 좋은 선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유기농법 농사를 통해 얻어진 농업부산물들을 발효하여 친환경 닭 모이로 사용하고 닭장아래에 깔아놓아서 닭들이 배설하게 한 별짚과 같은 것들을 퇴비화 하여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등 유기순환농법도 선교지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의료선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녹색선교’도 많은 결실을 맺

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막에 나무심어주기, 식수가 부족한 곳에 지하수 개발해 주기, 오염된 환경을 복원해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쓰던 학용품과 옷가지들 보내기 등 다양한 녹색선교의 아이템들을 개발하여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9. 친환경적 예배와 설교

환경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에 환경의 복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기도 시에도 창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신음하는 지구환경과 지역환경에 대한 회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야외예배도 가끔 드리고, 예배당 꽃꽂이 대신 화분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한 장식과 과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친환경 녹색설교는 복음적인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 자칫하면 설교가 환경운동 강연처럼 될 수 있다. 아무리 친환경적인 말씀을 전하더라도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환경오염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설교하게 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고 인간의 죄로 인해 황폐화하게 된 자연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고 창지기정신으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재확인하면 될 것이다.

오존층파괴에 대한 환경문제를 설교할 때에는 태초에 창조하신 빛과 오존층의 오묘한 섭리를 전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오존층파괴와 피해를 알려주고는 영적인 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두웠던 세상이 태초의 빛으로 밝은 세상이 된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도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밝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물 오염에 대하여 설교할 때에는 태초에 만드신 물과 물의 오묘한 성질에 대하여 전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물 오염을 소개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생수이신 성령님 없이는 결국 죽어 갈 수 밖에 없음을 전할 수 있다.

공기오염을 전할 때에는 하늘에 가득 찬 공기들과 그 역할들을 전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전한 다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과 영적 하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함을 선포할 수 있다.

흙 오염에 대하여 전할 때에는 어머니와 같은 흙의 역할과 기능을 전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흙이 오염되고 있는 실태를 전하고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지 않고 잘 가꾸어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십 배 백배 열배 맺을 수 있는 마음 받이 되도록 권면한다.

동식물 멸종위기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오묘하고 이름답게 만들어 주신 동식물에 대하여 전하고 인간의 욕심 가득한 활동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있음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고 참새 하나라도 먹이시고 들꽃 하나라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첨가물과 제품들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해를 알려주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전한다.

환경호르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육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환경호르몬의 위협의 실태를 전한 다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과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도 소망할 수 있도록 전한다.

사막화와 고령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복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땅의 사막화와 고령화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는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 주었던 온실효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온난화가 기후재앙을 불러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따뜻함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한다.

산성비에 관해서는 때마다 비를 내려 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유익한 비가 해로운 산성비로 바뀌었고 그 해가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늘 알맞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관한 농작물의 오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풍성한 것

들에 감사하고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해 땅도 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땅을 쉬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학대하듯 생산한 죄를 회개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오염된 농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과 다시 친환경농사법으로 돌아가야 함을 전하고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주신 것과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전한다.

자원고갈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연자원들을 묻어두셔서 인간이 개발하여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인간의 욕심이 과소비를 통한 자원고갈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재활용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림과 동시에 영적자원인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까지 함께 전할 수 있다.

에너지 문제를 다룰 때에는 썩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화석에너지원의 고갈과 더불어 재생가능한 천연에너지를 주셨으니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함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는 사랑임을 강조하고 사랑은 화석연료가 썩어서 된 것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서 사랑을 베풀도록 권면한다.

악취공해에 대해서는 향기를 만들어주시고 맡고 즐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이 그 좋은 냄새를 악취라는 공해로 만들어 버린 것과 그 피해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며, 우리는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선포할 수 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소리를 만들어주시고 듣고 즐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들을 소음으로 만든 인간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믿는 우리들은 늘 입에서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권할 수 있다.

특히 환경주일(6월 첫 주,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과 더불어 3월 22일 물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등이나 창조주일, 추수감사주일 등에는 이런 친환경 녹색설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사순절에도 경건과 절제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낭비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실천해 보도록 하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는 도농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친환경



경 활동이나 농산물을 구매하고 부활절 계란도 농촌교회에서 생산한 유기농 계란을 이용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과 농작물을 보살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 10. 친환경 교회교육

교회에서의 환경에 관한 교육은 주일학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젊은 부부층과 더불어 장년층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교인들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차원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권하고 각종 환경운동이나 캠페인 포스터를 교회에 부착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를 권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된다.

친환경적인 삶을 잘 실천하는 성도들을 '녹색선교사'로 뽑아서 격려함으로써 불편함을 무릎 쓰고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친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교육, 환경특강, 환경학교, 생태학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주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삶을 위해서 재활용품 공예교실,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교실 등의 교양교실도 가능하며, 친환경 화초 키우기, 텃밭 일구기, 지렁이 화분으로 음식물분해하기, 친환경 아크릴수세미 만들기 등의 친환경적 삶에 관한 교실들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수강을 열어두어 지역선교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계절마다 농촌교회나 기독교농가들과 연계하여 친환경 주말농장이나 모내기, 열매숙기, 열매 따기, 고구마 캐기 등 다양한 계절 도농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젊은 부부 몇 가정이 함께 유기농 배나무 한 그루씩을 분양받아서 꽃 수정하기, 열매 숙고 작은 봉지 씌우기, 큰 봉지 씌우기, 수확하기 등 봄부터 가을까지 4번의 방문을 통한 수정부터 수확까지 경험할 수 있어서 수확의 기쁨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름수련회도 유기농 농가와 연계하여 생태캠프로 진행해도 좋다. 2006년 젊은부부 모임은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친환경 공동체를 방문하는 수련회를 하여 유기농 밭과 유기농 닭사육장 등을 견학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의 영성강의와 더불어 선교비전도 공유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주변 계곡에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물놀이도 하는 등 자연 속에서의 친환경 수련회였다.

주일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든지 친환경 농가 방문과 실습, 그리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 장소를 섭외하여 자연을 접하며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여러 가지 친환경 활동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교회와 연계하여 농촌교회에서 숙식하며 그 지역에 농가와 연계하는 친환경 수련회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은 도시교회로 초청하여 도시적인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교류 수련회도 가능할 것이다.

주일학교의 주말 생태캠프나 가족 생태캠프를 통해 자연과 만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친환경 자녀교육캠프나 치유캠프가 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도 친환경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오리농마을, 누에마을, 더덕마을, 버섯마을, 억새풀마을, 갯벌체험마을 등과 같은 체험마을이나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등을 친환경농업을 재배하는 주말농장 등을 찾아서 농촌문화체험이나 산어촌문화체험, 과수원체험 등을 통해 도시교인들의 휴식과 정서에도 좋은 프로그램들도 가능할 것이다.

주일학교를 위한 친환경 교육을 위해서는 각 주제별로 다양한 환경적인 내용과 더불어 성경말씀과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친환경활동을 공과시간에 곁들임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의 주제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창지기의 사명’, ‘빛의 창조와 빛 되신 예수님’, ‘물의 창조와 생수이신 성령님’, ‘하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품’, ‘흙의 창조와 우리의 마음 밭’, ‘동식물의 창조와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가정의 소중함’, ‘다스림의 사명과 달란트 비유’, ‘지구온난화 문제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산성비의 문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친환경 먹거리와 영적 먹거리인 말씀’, ‘자원고갈문제와 영적자원인 은사’, ‘에너지 문제와 영적 에너지인 사랑’, ‘악취문

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 '소음문제와 감사와 찬양의 삶'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주제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그림과 환경선언', '무지개 만들기 활동과 세상의 빛 된 삶의 실천', '물 정화 실험과 물 사랑 결단하기', '촛불에 의한 공기 오염 실험과 공기사랑 결단하기', '흙의 정화능력 실험과 땅 보호 약속하기', '멸종위기 동물에게 위로의 편지쓰기와 동물보호 결단하기', '건강한 육체를 위한 체육활동과 더불어 건강 십계명 실천하기', '환경호르몬 없는 천연플라스틱 만들기과 환경호르몬 줄이기 약속하기', '자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세상그리기와 환경지킴이 다짐하기', '온실효과 실험과 지구온난화로 힘들어 하는 세계의 각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 '산성비 실험과 때를 따라 남을 돕는 결단하기', '세계 곳곳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사랑의 선물과 편지하기와 생명밥상 수칙 결단하기', '재생종이 만들기과 생활 속 재활용 약속하기', '친환경 에너지 체험하기와 에너지 절약법 실천을 약속하기', '아로마 향기초 만들기과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성령의 열매 맺기', '재활용품 악기 만들기과 기쁜 말하기와 기쁜 소식전하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1. 맺는 말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친환경적인 활동들이 하나둘 시작될 것이다. 교회가 의지만 있다면 참으로 다양한 친환경적인 운영방법과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처음부터 모든 친환경적인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덧 친환경적 녹색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친환경적인 교회운영은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사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더불어 시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친환경적인 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적인 교회의 운영과 교인의 삶들이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통한 지역선교와 복음전파, 그리고 세계 선교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기농산물의 애용이 친환경적인 사치나 건강의 이상화를 초래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이 단순히 환경보존만을 강조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나 교육 또한 환경보존 캠페인 강연이나 환경과학교실이 되지 않기 위

해서는 복음적인 요소를 반드시 잊지 않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매 번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이나 행사진행자가 복음적인 목적을 늘 잊지 않고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녹색세계선교는 굳게 닫혀 있는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수를 개발해 주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주며, 친환경농사법을 가르쳐주어 질병과 식수난과 공해와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친환경 선교를 어느 나라가 거절하겠는가?

이제 교회의 친환경적인 운영과 활동은 필수이다.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여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는 날을 기대한다.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녹색교회를 선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할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Memo



# 친환경 소비, 먹을거리와 생활재를 중심으로



김재일 이사장(예장생협, 연평교회 목사)

환경 포럼에서의 친환경 소비에 대한 발제를 의뢰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발제자가 처한 상황 그토록 가장 빨리 발전하던 예장 생협이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 발제자가 참여 해 왔던 발제자의 80년대 초의 민중-민주 운동을 포함한 농민 운동과 생협 운동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적 반성의 도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발제자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유배 혹은 피정을 가 있는 곳이 연평도라는 교토이 극히 불편하고 남북 긴장이 첨예한 서해 5도의 하나인 연평도인 관계로 15분 동안의 발제를 위하여 필자는 2박 3일을 출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들어 필자가 직접 발제 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필자로 하여금 발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감히 필자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중간 보고 형태로 발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운실로부터 온 취지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기독교의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를 토대로 교회신뢰회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취지문을 읽고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 기독교가 상당한 기여를 하는가? 그런데 왜 욕을 먹을까? 교회가 꼭 사회적 책임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 그것은 일종의 강박 관념 아닐까? 등등 이었습니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요즘 필자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더하여 읽고 있는 책들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교회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만

드는 한스 쿵의 '그리스도교'라는 책과 일본 생협 운동의 아버지이자 20세기 세계 생협 운동의 지도자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전기와 '우애의 경제학' 등의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신앙과 자발적 헌신에 기초한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살고 있는 후터라이트-부르더호프 공동체와 전기와 자동차와 수도를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를 통한 반성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당연히 TV나 라디오 그리고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미시들은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자녀들이 모두가 농사나 목공 등 일차적인 산업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8학년까지만 시키지만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농사와 노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있으며, 은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자는 반드시 공동체적 목적과 익명의 사회적 기부를 위해 사용합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기독교가 기여를 많이 한다고들 하지만, 초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아닐까요? 기독교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그것을 가장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지로 수많은 장애인 복지 시설과 어린이집을 기독교 단체가 운영을 하지만, 그로 인한 드러난 비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교회 혹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운영자의 경제적 실리가 되는 현실에서 그것을 내세워 교회가 기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또한 아미시들과는 달리, 또 당연히 성경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날, 일반 교회는 물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운동 단체들이 왼 손이 한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혹은 선교에 대한 강박 관념에서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사회에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공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선교 혹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아미시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사회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다운 삶을 사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즉 철저한 사회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 그리하여 산위의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가족과 인류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살린 노아의 삶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활협동조합 아니 협동조합 운동은 첫출발부터가 신앙적 기반에서 출발한 운동이었습니다. 아니 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삶이었습니다. 1844년

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테일 공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초대교회적 유무상통의 삶을 추구했던 로버트 오웬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20세기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에 의해서 꽃피워졌습니다. 이들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은 사회과학적 이데올로기나 운동 이론이 아니라, 말씀대로는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협동조합 운동은 이데올로기의 세기였던 20세기를 지나면서 신앙은 사상되어버리고 운동만 남았고, 결국은 한국의 농협이 그러하듯 정부에 포섭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던가 아니면 유럽과 같이 걸은 화려하지만 일반 주식회사나 다름없는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장 생협도 그 속에서 그와 똑 같은 방식을 추구하다가 경제적인 전문성도 없고, 세상의 방식과 같이 치열하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징벌로 인하여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다시금 반성적으로 성찰해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착한 소비, 유기농, 친환경, 더불어 사는 삶, 자연과의 공생 인간간의 협동? 정작 중요한 것은 걸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협이 아니라도 모두가 그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중에 그것을 안내세우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전지구적인 환경 파괴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 조류 아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실지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일반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적대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까지 맺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데, 가장 협동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 생협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논증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하면서 특별한 이유식을 선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기농 친환경을 이용하는 소비자일수록 걸으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똑똑한 그래서 이기적인 소비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본래 생협이 추구하는 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아는 인격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조차도 브랜드화 되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더구나 품질 인증을 요구하고 믿을만한 생산자를 찾으려 하면서 생산자의 어려움과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소비자가 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무농약 친환경 그 자체가 절대화 됨으로써, 가장 환경과는 거리에 먼 삶을 사는 도시 소비자들이 가장 환경에 가까운 곳에 사는 관행농사를 짓는 농촌 생산자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소비자 단체와 생협은 그에 영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회의론에 빠져 있어서나 기독교의 사회책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하고, 돈이라는 맘몬에 기댄 유물론적 (금융)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종언을 기하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의 전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더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운동 이론과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철저히 말씀에 순복하는 삶,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만이 가능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만든 고배 생협의 이념이자 일본 생협의 이념은 '사랑과 협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로치테일 공정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협동은 이데올로기로는 불가능함을 저는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생협이 된 일본 생협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협동을 추지할 내적 동력의 상실입니다. 일본 생협 지도자들 중에는 일본의 일반인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시민 운동 계열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노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생협들은 그리스도교적 신앙이 그 정관에서부터 없어지면서 일반 주식회사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협동은 초대 교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50이 넘어서고, 인생의 쓴 맛을 본 필자의 뒤늦은 각성입니다. 어느 유행가와 같은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기독교인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태에서부터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예정 속에서 태어난 존재이고, 따라서 기독교인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은 오직 사랑하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복, 말씀의 삶으로의 육화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아미시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철저히 믿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살지만, 일확천금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기들이 지은 농산물에 대해서 적절한 가치 이상의 금액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유기농으로 짓는 겨울에 나는 딸기나 수박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유기농이기에, 친환경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이 얼마나 철저히 소비자 이기적인 - 인간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크리스찬 생협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왜 교회에서 생협이 잘 안될까?를 늘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같은 크리스찬 생협인들이 모든 운영과 방식은 거의 일반 사회의 생협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단지 조직 그 자체 앞에 기독교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데 만족하고, 또 그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크리스찬들이 생활 그 자체에서 그리고 생협에서 참된 신앙적 동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바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큰 브랜드 생협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필자가 너무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론이 아니라 원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고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이 그 전에 보이는 것과 다르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상품 소비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에 기초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기 상대에 대한 이해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대한 철저한 순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똨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Memo



# 기후변화 대응 교회실천 및 녹색교회 운동



유미호 정책실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또 에너지 고갈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5년 후면 석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3년 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약 에너지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데다가 소비량의 97%를 수입하고 있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체 수입액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국가경쟁력이 낮은데, 에너지 소비가 마냥 늘고 있으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느는 만큼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홍수, 가뭄, 폭풍 등의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더 나아가 전염병 창궐, 농업과 어업의 생산성 파괴 등 다양한 문제도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에너지 문제에 국제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엄청나고 극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해졌지만, 그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나선다는 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동안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조그마한 변화나 의식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특히 내부에 자연 자원의 재생산 기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에서 시도되고 햇빛도시 만들기의 꿈은 의미있는 실험이라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설비를 갖춘 제주도 동광마을과 한경마을은 57개 가구가 필요 전력의 90%를 햇빛에서 얻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표방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전북 부안은 태양광전지판을 등용리 마중물 공동체, 원불교 교당, 부안성당 변산공동체 지붕에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된 전기는 전량 한전에 판매하고 있구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에는 교회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첫 날 '빛'을 만드신 것을 보고, 생명이 존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에너지라 여기며 신앙으로 에너지 위기를 바라봅니다. 또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가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그 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고백하며 에너지 위기에 당당히 맞섭니다.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햇빛에너지로 충당하고자 노력하고, 에너지 절약의 지혜를 짜내 실천하고 있지요.

## 1. 햇빛에너지로의 전환

우선 그들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서서히 그러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햇빛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햇빛에너지는 교회가 삶의 에너지를 태양과 하늘로부터 얻는다는 신앙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천의 지평교회가 '에너지 전환(구 에너지대안센터)와 함께 태양광 시민발전소 5호기(3kW)를 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국가 기준가의 7배나 높은 가격으로 한전이 15년간 의무 구매하게 되어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250여 만원 가량의 햇빛기금이 모여 마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 있는 옥상은 교우는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햇빛에너지에 대한 훌륭한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옥상녹화 공사도 계획하게 되었구요. 최근 서울지역에 있는 청파교회가 교인들의 힘으로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세워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도시 교인(향린교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여 마련한 생활비를 모아 전북 익산에 있는 들녘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해온 두 교회는 발전소 건설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도농 연대공동체의 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 봉천 6동에 위치한 광동교회 역시 지역아동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교육관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냉난방 등 전기 사용량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그 사용량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지평교회와 다른 점은, 설치비의 60%를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여 한전 전력계통과 연결된 계통형시스템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낮에 생산된 전기를 자

체에서 사용하다가 남으면 전력사에 소매가로 판매하고 밤에는 다시 전력회사에서 구입해 사용하지요. 그래 여름 별이 좋은 날은 전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햇빛발전소를 녹색교회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동노회에 속한 추월산, 로템, 하남장수교회 지붕에 각각 1기씩 3기나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에너지 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에 머물렀던 이들 교회들이, 햇빛발전소를 세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에너지는 절약되고 또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들마다 리모델링이나 예배당을 신축할 때, 이러한 햇빛발전소시설에 태양열 온수 및 난방(설치비의 50% 정도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채광이 잘되게 하는 등 설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빛이 잘 드는 곳에 온실을 만들어 채소도 가꾼다면, 이 땅 가득히 창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눈부신 햇살처럼 다시금 빛날 것입니다.

## 2.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맞선 교회들의 노력, 두번째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매년 6월 첫주일인 환경주일을 기해 전국교회에 제안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에너지 사랑’ 캠페인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불편한 삶의 길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시간에 높은 온도(25℃ 이상)를 유지하는데, 교인들이 내복을 입도록 제안하고 예배실 온도를 20℃ 아래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하고,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전에 미리 난방기를 꺼서 남아있는 온기를 활용하도록 합니다(여름철에는 에어컨에만 의존하기보다 선풍기를 같이 활용하고, 적정온도 26-28℃를 유지하도록 하지요). 또 교인들에게 교회 이름이 새겨진 온도계를 선물로 주어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겨울에 조금 춥게 지내고, 여름에 조금 덥게 지내는 일. 그것은 개인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태학적 건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거든요.

둘째는, 가정과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속 CO2 줄이기’ 운동입니다. 2007년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앙교회와 부천의 지평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차없는 주일’로 지켰습니다. 주일마다 빼곡히 들어서던 교회 주차장을 비워두고, 맑은 공기와 함께 맞이하는 주일은 고요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비록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를 찾은 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지

구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문밖, 약수동, 전농, 좋은만남, 향린 등 많은 교회들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기, 가스, 수도, 자동차 주유비 등 생활 구석구석에서 발생시키는 CO2를 '에너지가계부'에 기록하게 하여 자신이 지구에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알아 고통받는 생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는, 나무를 심고 가꾸게 하는 '교회를 푸르게'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동산으로서의 숲을 회복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적극적 방법입니다. 2000년 이후로 교회녹화 시범교회에 참여했던 평화의, 성담, 새터, 월곡, 서울성남교회 등은 교회의 담장을 헐고 나무울타리를 만들거나 마당에 작은 동산을 만들어 회색도시에 푸르름을 더하였습니다. 마당이 없는 교회라면 옥상에 하늘동산을 가꾸거나, 자투리땅을 찾아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었지요. 광동교회는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곳까지도 찾아내어 한평공원으로 되살려내고 있는 곳입니다. 작은, 고기, 쌍샘, 청치기교회의 경우는 교회 동산을 활용하여 자연학교를 운영함으로 둔갑해져가고 있는 생태감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넷째는 '초록가게'를 통한 자원 재활용, 재사용 실천운동입니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재활용이 촉진되면 메탄 발생량도 따라서 감소합니다. 백석, 동덕, 영등포교회 등은 초록가게를 열어 재활용 재사용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고효율제품이나 환경에 피해를 덜주는 환경상품의 사용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생명의 쌀로 생명밥상을 차려 남김없이 먹는' 운동입니다. 2002년 이후로 생명밥상 빈그릇 캠페인을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국내산 생명의 쌀(유기농 쌀) 나누며, 육식을 삼가고 곡 채식을 즐기거나 음식쓰레기 배출을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는 물론 지구온도 상승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메탄의 발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수 등 도시교회들은 농촌교회와 협약을 통해 매주일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교회 밥상에 올려 성도들의 몸과 마음, 영혼은 물론 지구를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머지않아 대재앙을 몰고 올 지구온난화에 비하면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신 주님의 경고임을 알고, 햇빛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교회가 있는 한,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절망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생명에게 빛을 끌고루 그리고 충분히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도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올려 전기를 생산하고, 옥상녹화로 단열을 하고,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들거나 난방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가는 교회들이 생겨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 3. 녹색교회의 꿈

이들 교회들이 뿌리고 있는 씨앗은, 세상을 푸르게 가꾸어 가고자 하는 ‘녹색그리스도인’의 꿈, 그리고 **‘녹색교회’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녹색교회는 1998년 ‘녹색교회21’<sup>1)</sup> 제정 이후로 지역순회교육과 더불어, 시범교회<sup>2)</sup> 운영 등을 통해 세워져가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와 소속 교단, 그리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공동 선정하는 녹색교회가 매년 지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된 교회들 가운데, 백석교회는 2006년, 광동, 들녘, 송악교회는 2007년, 신양, 지평, 청과교회는 2008년 녹색교회로 선정된 곳들입니다.

이들 녹색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 보전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사랑하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될 때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창지기의 사명을 부여 받았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을 지니고 있기에, 그들은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에는 흠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형제자매로 지음 받은 생명들에 대한 따스함이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경외

---

1) **녹색교회21**은 생명위기 시대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초대교회의 신앙양식(예배, 친교, 교육, 봉사) 등을 빌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한 것이 녹색기독인십계명과 녹색교회십계명입니다.

**<녹색기독인십계명>**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4) 사 용합시다, 중고용품. 5)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쓰시다.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칠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삼시다. 8) 팔지맙시다, 소비광고에 한눈을. 9)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 10)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녹색교회십계명>** 1) 환경주일(6월)을 정하여 지킵시다. 2)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 기도합시다. 3)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설교합시다. 4) 창조보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합시다. 5) 환경전담 부서를 둡시다. 6) 환경을 살리는 데 예산을 사용합시다. 7)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소비를 절제합시다. 8) 냉난방을 절제합시다. 9) 중고품, 재활용품, 환경상품을 애용합시다. 10) 지역사회, 교회들 간에 환경보전을 위해 연대합시다.

2) 시범교회 운영은 매년 주제를 달리 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교회숲 가꾸기(담장철거, 녹색철터, 녹색주차장, 하늘동산 등)’, ‘생명밥상 빈그릇운동’, ‘지렁이, EM을 통한 남은음식을 퇴비화’, ‘초록가게운동’,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CO2 저감운동 - 에너지 가계부, 재생지 이용, 차없는 주일’, ‘교회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물사랑 실천운동’, ‘지역교회의 주말생태교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여는 생활속환경교육’ 등이 있습니다.



하며, 한 생명, 한 우주, 한 천지, 한 바람 속에서 사는 기쁨의 의미를 깨달아줍니다. 그들에게 썩어 버린 물을 마당에 쏟아 붓지 않을 만큼 작은 생명조차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또한 그들 교회에서는 사람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의 구원에만 관여하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향기로운 꽃, 맑게 노래하는 온갖 새와 벌레들, 아니 모든 생명 안에서 하늘과 땅, 비와 바람,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생명의 외침을 들을 수 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 4. 녹색교회 열다짐

녹색교회를 꿈꾸며 창조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이들 교회들이 늘 다지는 '녹색교회 열다짐'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포> 1. 만물을 창조하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 1) 환경주일을 정하여 지킵시다.
  - 2) 창조보전에 대한 설교를 합시다.
  - 3) 성만찬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읍시다.
2.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한 몸임을 고백한다.
- 1) 매일 정오에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2) 자연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 3) 단순 소박하고 불편한 삶을 즐깁시다.

<교육> 3. 창조보전에 대하여 교육한다.

- 1) 녹색의 눈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 2) 창조신앙 사경회 및 특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여합시다.
  - 3) 자연과 희로애락을 함께 합시다.
4. 어린이와 청소년을 친환경적으로 키운다.
- 1) 환경 교실(주말, 캠프)을 운영합시다.
  - 2) 간식을 줄읍시다.
  - 3)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시킵시다.

<조직> 5. 환경을 살리는 교회조직을 운영한다.

- 1) 환경 전담 부서를 둡시다.
- 2) 환경을 살리는데 예산을 사용합시다.


- 3) 환경 전담 사역자를 둡시다.
- 6. 교회가 절제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 1)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줄입시다.
  - 2) 냉난방을 절제합시다.
  - 3)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친교> 7. 생명밥상을 차린다.

- 1)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애용합시다.
- 2) 가공식품과 외식을 삼가하고, 제철음식을 먹읍시다.
- 3) 쓰레기 제로, 빈 그릇 운동에 동참합시다.
- 8. 교회를 푸르게 한다.
  - 1) 교회 담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작은 숲으로 바꾸어갑시다.
  - 2) 녹색 에너지를 이용합시다.
  - 3) 교회에 오갈 때는 걷거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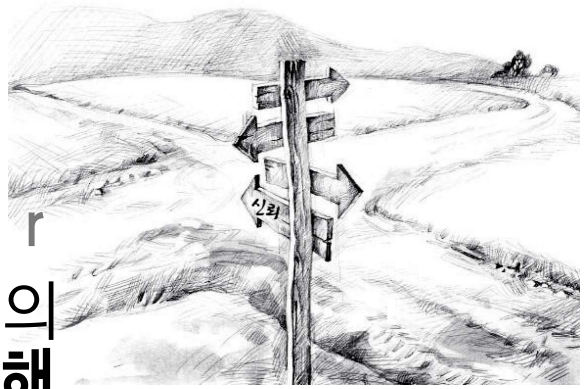
<봉사> 9. 초록가게를 운영한다.

- 1) 환경 정보를 나눕시다.
- 2) 환경 상품을 애용하고 권장합시다.
- 3) 도농직거래 장터를 운영합시다.
- 10. 창조보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대한다.
  - 1) 교회가 지역의 환경 센터가 됩시다.
  - 2) 주변의 교회들과 창조보전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 3) 환경 정화와 감시 활동을 합시다.

바라기는 에너지를 아끼고 하늘로부터 오는 햇빛에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 자연과 조화하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녹색교회’의 씨앗이 날마다 이 땅 가득 뿌려질 뿐 아니라, 땅 속 깊숙이 뿌리내려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한 번 ‘참 좋다’하실 만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Memo



www.trusti.kr

#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TRUST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 — 2009 기윤실운동의 3영역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높은뜻교회연합 대표목사),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욱(송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은혜(송실대 교양학부 교수), 조성돈(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재생종이  
사용캠페인



## 매주 4그루의 나무를 살립니다.

2008년 기윤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기윤실, 환경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1탄\_종이컵은 사양합니다, 2탄\_재생복사용지를 사용합시다, 3탄\_Stop Co2캠페인, 4탄\_이메일로 청구서를 바꿔보세요)

이중 가장 큰 결실을 맺은 것은 재생종이 사용으로 2008년 한해동안 기윤실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복사용지와 소식지 및 주요 인쇄물을 재생종이로 사용하여 A4기준 약 60,000장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생 원목 1그루가 생산하는 종이량이 A4 기준 약 10,000장인데, 재생펄프 함유율을 평균 50%라고 했을 때 3그루의 나무를 살린 것이지요.

기윤실은 올해 좀 더 집중적으로 재생종이 사용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재생종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종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등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림을 보호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은 교회들이 각종 인쇄에 재생종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들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에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재생종이를 사용하여 인쇄물(주보 등)을 제작하시는 교회나,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교회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윤실의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을 통해 지구를 시원케 함으로 주님을 시원케 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조제호 팀장 070-7019-3757, [jehoc@hanmail.net](mailto:jehoc@hanmail.net))

〈사례 1〉 기윤실 동역교회 70교회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고 기윤실 동역교회들이 출석교인 수 만큼의 주보를 재생지로 사용할 경우(주보가 A4 1장이라고 한정하더라도) 매주 7만 9천장의 종이를 절약하여 약 4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고, 1년으로 계산하면 약 205그루의 나무를 교회들이 주보사용만으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재생펄프 함유율 50% 기준)

	교인수	2만명	5천명	1천명	5백명	2백명	1백명
교회수	2교회	3교회	10교회	15교회	25교회	15교회	70교회
합	4만명	1만5천명	1만명	7천5백명	5천명	1천5백명	7만9천명

〈사례 2〉 교인 수 5천명의 교회가 연간 사용되는 인쇄물을 재생종이로 사용했을 때 5천명 성도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인쇄물을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약 3백 5십만장의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연간 약 174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생펄프 함유율 50% 기준)

내용	주보	소식지(신문)	복사용지	포스터	인쇄물	
분량(A4)	2장	40장	1,000장	8장	100	
회수	52회	12회	52주	12회	1회	
부수	5,000부	5,000부		50장	5,000부	
합	520,000	2,400,000	52,000	4,800	500,000	3,476,800



# 여기 우리들의 행복한 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헌신된 기독교대학생 교사들을 학교와 교회에 파견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돌봄과 학습을 지원하는,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입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 취약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씨앗학교를 운영합니다.

- ☞ 학교, 교회에서 방과후 씨앗학교(5-8pm)를 운영합니다.
- ☞ 청소년에게 전인적돌봄과 학습지원을 지원합니다.
- ☞ 학교-교회-기업-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이 최대한 네트워크되도록 협력합니다.

## 대학생 멘토링 교사를 양성합니다.

- ☞ 체계적인 교사훈련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합니다.
- ☞ 리더십개발, 청소년이해, 멘토링 등 알찬 내용으로 훈련합니다.

## 씨앗학교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 전국에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교사모집** / 봉사기간 : 7월-12월까지 / 주2회(pm5-8), 놀토 2회, 월 총 10회, 각 3시간씩. (약30-35시간)



3-4월 / 씨앗학교 커리큘럼 &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4-5월 / 학교·교회 현장 개발, 교사 모집

6월 / 학생·교사 모집, 교육 토론회 개최

7-8월 / 교사훈련

9월 / 씨앗학교(시범모델) 개강

문의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지원팀 김양미 간사(070-7019-3761, lambmee@empal.com)



# 공공신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세상 속에서 소통하는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

임성빈 외 13인 지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264면 / 12,000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요즘 가치와 문화, 철학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신뢰성 있는 소통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다룬 책 -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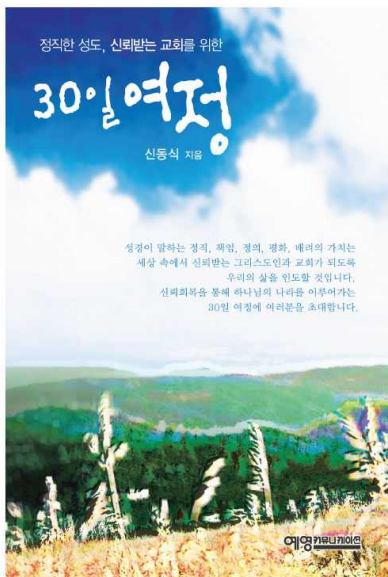
이번 공공신학 출판은 외국문헌을 국내에 소개하는것을 넘어 국내 학자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을 담아내고, 신학적 토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철학, 행정학, 사회학 등 제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화두를 함께 다루고 있어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예영커뮤니케이션 **기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지재(목차순) : 임성빈(장신대) 이윤경(안양대) 김호경(서울장신) 이상원(총신대) 이상화(한목협) 조성돈(실천신대) 장신근(장신대) 배요원(장신대) 최태연(백석대) 정재영(실천신대) 이승중(서울대) 강원돈(한신대) 김은혜(송실대) 양새진(기윤실)

##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를 통한 균형있는 성경 묵상



신동식 지음 | 9,000원 | 예영커뮤니케이션

성경이 말하는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신뢰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30일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6단계의 묵상 여정

- \* '30일 여정' 묵상교재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1\_오늘의 말씀 2\_말씀 나누기 3\_깊은 묵상 4\_삶에의 적용 5\_정직한 기도 6\_미션뱅크
- \* 6단계의 구성은 간편하면서도 집중적인 말씀 묵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 이런 점이 다릅니다!

- \*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 \* 5개의 핵심가치를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직장과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묵상은 물론 그룹 토의 및 나눔, 특별 집회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RUST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사회  
INITIATIVE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http://www.trusti.kr)